

루소의 體育思想

鄭 應 根
(體育教育科)

I. 序 言

18세기에 볼란서가 낳은 장자크·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유럽 근대 사상의 흐름에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다. 역사상 그는 教育哲學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浪漫主義를 대표하고 있으며 반면에 매우 과격한 教育改革을 企圖하였다.

현대 教育思想이나 實際에 있어서 그의 업적이나 공헌은 再評價의 여지조차 없으며 教育의 분야 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학 등 여러 분야에서 공헌하였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의 전 생애를 볼때 소년시절 부터 정규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成年이 되어서도 전혀 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에 참여하지 않고 학술 및 저술 활동을 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그의 업적을 더욱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큰 업적 가운데에도 교육문제에 있어서 결점은 보여지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理想에 치우친 반면에 實際的이지 못한 點이다.

그의 教育소설 <에밀>을 보면 어떠한 아동이든지 하루종일 교사의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아동은 교사에게 全的으로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영구히 의지하여야만 하였다.

그렇지만 여하간 그는 보편적인 인간에 관한 루네쌍스적인 개념, 즉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고대 희랍의 이념으로 돌아가서 후세에 서당식 교육의 전통을 지양하고 어린이는 어린이로 대할 것이지 어른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여 오늘에 물려 주었다(Burgener 1974:111).

본 연구는 그의 이러한 교육사상 가운데에 체육의 영역과 관련된 내용 및 사상을 고찰 정리하여 현실 교육을 발전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教育思想

(1) 教育信念

루소의 기본적인 교육신념은 「자연」과 「단련」으로 요약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를 인간은 원래 출생하는 순간부터 자유롭고 평등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이것이 방해 된다고 하면서 그러한 저해 요인을 없애기만 하면 원시시대와 같이 자유와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에밀>의 서두에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두가 다 좋으나 인간의 손에서 모두 나빠진다”(박은수역 1973:17)고 서술하고 있으며 또 “모든 습관이란 굴종과 속박과 강제에 불과하다. 인간은 노예상태 속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 나면서 부터 포대기 속에 꿰매어 지며 죽으면 관속에 못 박힌다. 인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동안은 제도에 묶인다”(박은수역 1973:28)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바로 전술한 자유와 평등 등 그의 신념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에밀> 속에서 교사인 루소 자신은 아동에게 자연적이며 자유방임적인 교육방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학생인 에밀에게 말다툼도하지 않고 그를 혼계하지도 않으며 어린 나이에 독서도 강요하지 않는다. 책이나 교사의 지도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접 경험을 통하여 자연의 세계를 관찰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놀이(play)와 게임도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Hackensmith 1974:112).

이상과 같이 루소는 자연주의 교육자로서 그 교육방법도 자유방임적이며 자연적인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뜻 생각하면 모순 된것 같이 생각하기 쉬우나 정반대적인 면을 또한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격심한 訓練과 스파르타식 신체단련이다.

그는 성인에 되었을 때에 평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어린시절에 신체적 고통과 시련을 젊은이에게는 격심하고 위험한 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Hackensmith 1974:113). 그 방법으로서 유아기에는 운동을 시키기 위해 방을 많이 기어 다니도록 하고 목욕도 자주 시키며 점차적으로 더운물을 차거운 물로 시키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차거운 공기와 물은 인간에게 활동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Good 1963:211).

<에밀>에도 같은 내용의 설명이 있는데 그대로 인용하면 즉 “자연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가라. 자연은 항상 아이들을 단련한다. 온갖 시련으로 아이들의 체질을 굳혀준다…… 아이들이 언젠가는 겪게 될 타격에 대비해서 단련 시켜라. 고르지 못한 계절이나 풍토, 환경에 대비해서 아이들의 몸을 단련시켜라” 하고 주장한다(박은수역 1973:3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술한 바와 같이 루소는 “자연”과 “단련” 이 양면의 조화를 교육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2) 교육방법

루소는 <에밀>에서 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은 약하게 태어나 힘이 필요하지만 빈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태어날 때는 갖고 있지 않으나 성장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교육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 교육은 자연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해 준다. 기능, 기관의 내부 발전은 자연의 교육이며 인간에게 작용하는 대상물에 관해 인간 자신의 경험이 얻는 것은 사물의 교육이다(박은수역 1973:19). 이것은 아동에게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연, 인간, 경험(Sense perception)이며((Hackensmith 1974:112) 또한 教育의 類型도 이 셋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첫째로 자연에 의한 교육은 인간의 내부에 갖추어진 각 기관과 그 능력의 자연스러운 내면적 발달이며 이는 인위적으로 좌우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경험에 의한 교육은 아동이 외부 세계의 사물과 접촉하여 감각기관에 의하여 얻게 되는 것을 뜻하며 인간에 의한 교육은 완전한 인위적인 교육으로 지금까지의 교육에 있어서 많은 폐단을 가져오게 한 것이며 이른바 知育이나 德育의 교육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교육방법을 통해서 올바르게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나타내려면 교육환경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완전한 교육도 이 세가지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일치해서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가장 理想的인 교육의 방법을 첫째의 자연에 의한 교육을 중심으로 경험 및 인간에 의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Ⅲ. 體育思想

(1) 體育은 知育의 基礎

루소는 體力과 知能의 상호 관련성을 매우 중요시 하며 體育과 知育은 병행해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에밀>에 보면 “제자의 기능을 길러 주려면 그 지능을 다스려야 할 힘을 길러 주어라. 그 몸을 끊임없이 단련 시켜라. 그를 현명하고 이성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라”(박은수역 1973:176)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체력의 중요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신체훈련은 아동의 지능발달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하며 또한 지능발달의 기본이 되는 이해력 증진의 기초도 된다고 주장한다(Boyd 1960:173).

그러나 이들은 또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신체 또한 그 자신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정신과 병존해야 하는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신체의 단련이 정신작용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심신이원론적인 생각은 정말 딱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Boyd 1960:53).

(2) 體力은 精神力의 바탕

루소는 체육의 주 목표는 건전하고 활동적인 심신의 조화적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신체훈련은 따라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며 정신력 배양 및 도덕적 효과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에밀>에서 “몸이 심혼에 복종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모든 욕정은 연약한 몸에서 부터 생기며 허약한 몸은 또한 정신을 약하게 만든다”(박은수역 1973:48-49). 또 “몸이 강하고 튼튼해 질수록 지각있고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견비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偉人은 체력과 정신력, 체력과 이성 이 양자를 견비한다”고 서술하고 이들 심신의 활동이 상호 발달을 돕는다고 강조하였다.

Boyd (1960:171)도 루소의 이같은 사상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그는 체육을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만드는데 공헌하였던 것이다.

(3) 野外活動

자연주의 교육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진보적인 체육개념은 신체훈련 및 운동기술의 습득은 물론 즐겁고 가치있는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野外教育을 강조한 점이다.

루소는 유아기의 교육은 3세부터 12세까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 기간에 자연속에서 유희, 스포츠 게임 등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므로써 규율, 평등, 우애, 경쟁, 동료들과의 공동생활과 같은 민주적 시민성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Butts 1955:290; Mayer 1960:243), 또한 여행도 매우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권장하였다(Hackensmith 1974:115). <에밀>에서는 가공의 학생 에밀의 생활을 보고 “에밀은 어느 계절에도 아침마다 맨발로 방, 계단, 뜰을 뛰어 다닌다. 그것을 꾸짖기는 커녕 나도 따라야 겠다. 사람은 멀리 뛰어 오르고 나무에 올라가고 담을 뛰어 넘을 수가 있어야 한다. 나는 그를 오페라 극장의 댄서보다는 노루의 적수를 만들겠다”고 교사인 루소 자신은 그의 사상을 서술하였는데(박은수역 1973:117-118), 이러한 야외활동은 곧 신체훈련과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인내심을 기르는데 불가결한 것임을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위 생 관

전술한 바와 같이 건강한 신체에서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주장이지만 허약한 사람, 즉 신체적으로 튼튼치 못한 사람도 藥의 사용은 절대로 금지시키고 있다. 그 이유로서 약의 사용은 점차로 다른 더 큰 病을 얻게 되는 요소가 되며 약의 사용보다 자연의 치료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박은수역 1973:110). 또한 醫學에 있어서도 치료를 통한 효과보다 豫防醫學을 더 重要視하고 있다. 그의 설명을 보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대신해서 병을 당하는 법, 즉 예방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의술보다 효과면에서 훨씬 낫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곧 자연의 기술이라고 설명한다(박은수역 1973:51).

또한 예방의 방법으로서 두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일(노동)이요, 둘째는 절제이다.

노동은 자연히 사람들의 식욕을 돋구어 주므로써 건강을 증진 시킬수 있고 절제는 체력의 남용을 방지해 주므로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의학의 분야에서 위생학 분야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박은수역 1973:52).

IV. 結 語

이상 후술의 체육사상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그의 근본적인 교육철학은 “자연”과 “훈련”으로 요약되며 방법면에서 최대한의 자연에 의한교육, 최소한의 인간에 의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그의 체육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體育은 知育의 기초가 되며 병행되어야 한다.
2. 체력은 정신력의 바탕이 된다.
3. 아동의 교육방법중 야외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4. 인간의 건강유지에 있어서 약이나 의술을 통한 치료보다 일과 절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參 考 文 獻

- 朴恩守(역)(1973), J.J. Rousseau *Emile* 서울:성문각
- Hackensmith C.W.(1974),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 Mayer Fredrick(1960), *A History of Educational thoughts* Ohio, Charles E. Merrill Book Inc.
- Good H.G.(1960), *A History of Western Education* New York, The MC Millan Company
- Burgener L.(1974), “Rousseau and Physical Education”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Tokyo, KODANSHA LTD.*
- R. Freemann Butts(1955), *A Cultural Histry of Western Education*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 Boyd William(1960), *Emile for today* London William Heinemann LTD.

Rousseau's Thoughts of Physical Education

Chng, Eunp-Kuen

Abstract

Rousseau, a thinker in the era of enlightenment, published his influential book, *Emile*, in which he deals with the religious, social and educational condition not only of France but of all western Europe.

So this study attempts to deal with his thoughts of physical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Physical education lays the foundation for and proceeds with intellectual training.
2. Physical fitness is the foundation for the spiritual development.
3. Games and sport in the open are important in childhood.
4.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medical treatment in hygiene.